

히틀러의 음모

양준석 · 소설가

덩커크(Dunkirk)에서 열다섯번째의 성능과 규모를 자랑하는 슈퍼컴퓨터 NC-2001.

그가 드디어 열번째 소설을 발표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신문과 방송은 그의 신작에 대한 화제로 온통 들끓었다.

“제목은 《히틀러의 음모》라고 합니다. 삼백년 전 히틀러의 스탈린그라드 원정 상황을 다룬 것이라는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주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군요.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뒤 출간된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NC-2001. 그는 소설창작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컴퓨터다. 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이혼권의 책은 전 세계에서 무려 2억부 이상 팔려 나갔다. 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이란 문학상은 모두 휩쓸어버리는, 그 어떤 컴퓨터도 흉내내지 못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NC-2001. 사람들의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했다.

이튿날, 그의 신작에 대한

“이렇게 되니 소설 《히틀러의 음모》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꼴이 돼 버렸다. 치유가 되지 않는 이상, 특히 NC-2001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신작을 접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출간을 고대하던 사람들의 당혹감은 말할 것도 없었다.”

평이 나왔다. 평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CC-5000과 CC-5001, 그 외에도 세계 각국의 컴퓨터들이 일제히 평을 쏟아냈다. 특별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고성능 컴퓨터들은 <S3>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S3>은 최고 중 최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극히 드문 경우에만 사용되는 기호였다. 또다시 매스컴이 들끓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사기 위해 예약을 서둘렀다. 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에 <S3>의 표현을 쓰는 것일까……,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그런데, 이를 후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NC-2001이 작동을 멈춰버린 것이다. 출간을 불과 5일 남겨둔 시점이였다. 이것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NC-2001이 고장날 수

도 있는 컴퓨터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에 나선 결과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바이러스의 영향임이 밝혀졌다. 덩커크인들은 치료에 나서야 했다.

바이러스 치료용 슈퍼컴퓨터인 VD-2001이 즉각 투입됐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처럼 놀라운 결과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전날 NC-2001에 접속해 그의 신작을 탐색했던 전 세계의 컴퓨터가 동시에 마비됐다는 것이었다. 그 수는 무려 수백만대에 달한다고 했다.

침투한 바이러스는 마치 폭탄과도 같아서 단 한번의 폭발로 모든 걸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되니 소설 《히틀러의 음모》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꼴이 돼버렸다. 치유가 되지 않는 이상, 특히 NC-2001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신작을 접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출간을 고대하던 사람들의 당혹감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정말이지, 이젠 아무 것도 없었다. VD-2001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긴 있었다. 그것은 바로 NC-2001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킨 미지의 불순 컴퓨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제 《히틀러의 음모》는 접속을 시도했던 수많은 컴퓨터 중 하나일 그 미지의 컴퓨터만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프로이센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매스컴도 마찬가지로였다. 과거의 역사적인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 프로이센 정부가 NC-2001에 접속하여 자료를 빼간 뒤 가공할 바이러스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소문을 접한 프로이센 정부는 이를 터무니없는 비방이라며 즉시 부인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의심은 프로이센 쪽으로만 향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들은 곳곳으로부터 협박을 당해야만 했다. 일부는 프로이센 정부의 주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고, 보다 과격한 일부는 도시에 폭탄을 설치하여 터뜨려버리겠다고 했다. 특히 덩커크의 사람들은 세계적인 창작 컴퓨터를 못쓰게 만든 국가를 찾아내 물리적인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 나라가 프로이센이더라도 말이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프로이센 정부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조사에 들어갔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 조사에는 사람들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 각국의 참관인을 동석시켰다. 조사는 무려 24시간이나 걸렸다. 동원된 컴퓨터만도 서른 대가 넘었다.

결론이 나왔을 때, 프로이센 정부는 물론 모든 참관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곳엔 《히틀러의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900조 메가바이트의 용량 중 0.3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NC-2001의 작품! 특히나 프로이센 정부의 관리들은 난처함을 감출 수 없었다. 프로이센의 컴퓨터는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했던 것이다. 접속 후 그는 NC-2001의 작품이 자국에 해가 된다고 판단했으며 그 즉시 파일을 옮긴 뒤 바이러스를 침투시켰던 것이다.

프로이센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특히, 사건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히틀러의 비밀을 감출 생각이 없으며 책은 예정대로 출간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컴퓨터간의 사건이지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 했다.

며칠 후 사람들이 책을 볼 기회가 왔다. 책은 프로이센 정부의 말대로 제 날짜에 출간됐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NC-2001의 신작에 달려들었고, 작품에 대한 토론회도 곳곳에서 열렸다. 출간 후 일주일 간 책은 무려 오백만부 이상 팔려 나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프로이센의 역사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히틀러는 그 과감한 용기와 지략으로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프로이센의 슈퍼컴퓨터가 NC-2001의 신작을 수정했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사실을 알 리는 없었다. ❖

